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다니엘예언서 7:13-14	제2독서	요한묵시록 1:5-8	복음	요한 18:33-37
--------	------	----------------	------	-------------	----	-------------

◎ 말씀 <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왕 >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성탄절 전설 중에 <넛째 왕의 전설>이 있습니다. 황금이나 유황 또는 몰약이 아닌 귀한 보석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넛째 왕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왕은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다섯 군데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서 다 죽어가는 한 어린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보석중 하나를 주고는 아이를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기를 간청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다시 길을 계속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 하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가 남편의 주검 뒤를 따라가는 장례행렬을 만났습니다. 죽은 남편 많은 빛을 떠안은 채 죽었기에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야만 될 처지였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또 하나의 보석으로 그 빛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왕에게는 하나의 보석만 남았습니다. 왕은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은 군인들에게 점령되어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살리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귀한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 한 필 뿐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길을 계속 가다가 그 왕은 어떤 노예를 만났는데 그 노예는 자기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다 부인과 아이들을 버려둔 채 큰 배의 노젓는 노예로 팔려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자기 말을 넘겨주고

그자를 대신해서 노젓는 노예 배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한참 흘렀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왕의 머리는 벌써 반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름도 모르는 어느 외국 땅에서 사형 집행을 지켜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군중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형날이었습니다. 못 박히신 분의 눈길이 자기를 내려다 보았을 때 왕은 불현듯 거의 전 생애 동안 순례했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린 분께 자기의 빈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왕의 뻗쳐진 손에 세 방울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세 방울의 피는 자기가 가졌던 세 가지의 보석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축일을 지내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평평거리는 삶을 사는 왕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과 같이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27일(화)	연중 제34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3,370.00 \$ 1,450.00
11월 28일(수)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244.00 \$ 521.00
11월 29일(목)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물방 원캠페인	\$ 42.00 \$ 100.00
11월 30일(금)	성 안드레아 사도축일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100.00 \$32,100.00
12월 1일(토)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오전 10시 30분	교구2차헌금 합 계	\$ 661.00 \$38,588.00
12월 2일(일)	대림 제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8성인: 241명
교무금 봉헌자	장현철. 김중순. 이수동. 김길록. 이상일(11-12월) 장순욱. 이윤상(9-12월) 김형일(6-12월) 김기환(10-11월) 류승교(9-11월) 김귀태(8-10월) 김선석. 원승남. 김에릭. 이재덕. 성영진. 김평옥. 김승제(11월) 염규홍(12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늘에 있나요?

“구름 너머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 인가요?”, “하늘나라, 천국(天國), 하느님 나라는 모두 다 같은 건가요?”, “신자들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인가요?” 신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들은 후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본다.  
저 어디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일까?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는 하느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 또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첫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마태 4, 17 참조). 하느님 나라는 어느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이미 시작된 나라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다”(교회헌장, 3항).

또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교회헌장, 5항) 나라로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나라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루카 11, 20).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시에,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세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 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교회헌장, 9항).

하느님의 나라는 이곳이나 또는 저곳에 있는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 그분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맛보며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바오로 사도가 잘 지적하였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로마 14, 17).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황순이. 마리아 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 그레고리오/배미성. 오티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헤리나. 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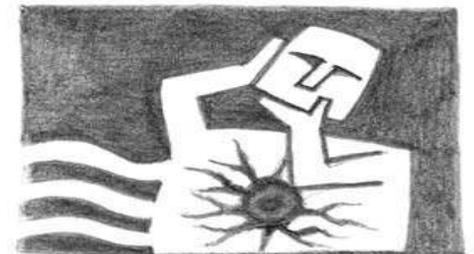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임안드레아.임실비아 가정의 영육간 건강	구비아	생	임채봉.안드레아,임정남.실비아의 영육간 건강	이종만모세 가정
생	이진행.베드로의 영육간 건강	임시몬	생	이규청.제노비아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테레사

◎바보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자격은 하나 없으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건방지게 그 행운 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바보처럼 내 오만의 죄까지 잊고 산다는 것.

마종기 노렌조 · 시인, 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b>요르단+이스라엘</b> <b>성지순례</b>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b>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